

21세기 정보통신기기분야 일류화 추진

2001년 연매출액 5천억 달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조 동 완

(주)한국마벨 대표이사

▲ 1944년 대구출생 ▲ 1971년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 93년 삼성전관 전무
▲ 95.4월 (주)한국마벨 대표이사(현)

한국마벨은 그동안 테크, 튜너, 바리콘 등을 전문 생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주)한국마벨은 1966년 설립 이래 30년간 전자부품 분야에서 경영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음향기기 분야의 부품에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의 핵심부품인 폴리 바리콘을 위시하여 카오디오 부품인 테크 메카니즘과 튜너 그리고 통신용 부품인 중간 주파수 변성기(IFT)를 생산하여 국내의 오디오 Maker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부품 가공, 금형 제작 등 기구분야에서 일관생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3개 공장과 해외(중국, 태국) 2개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일본에 연구소를 두고 주력제품인 테크 메카니즘분야 제품계열화(Auto Stop, Auto Reverse, Full-Logic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장기발전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국내 3군데 분산된 생산사업장(화성의 조립공장, 황성의 부품가공공장, 서산의 알프스와의 합작



공장)을 몰류면, 향후 제품개발 방향, 제품계열 Synergy 등을 감안하여 충북 진천지역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기존제품 중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군은 정리하고 향후 시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테크메카니즘은 필립스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CD관련 품목을 확대하고 튜너도 부가가치가 높은 Module분야에 집중하고 변성기나 Coil류도 표면실장용 및 이동통신 용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현재 회사의 장기 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있지만 장기 비전으로서 "21C의 전자부품 및 정보통신기 기분야의 일류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2001년에는 기존 자동차관련 전자부품의 비중은 20% 선으로 유지하고 정보통신분야의 기기 및 부품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단계적으로 Display부분을 축으로 하여 유선 방송/위성방송관련기기 및 부품,

휴대용 통신 단말기, CD관련 정보 주변기기, 무선 Network 관련 기기 및 부품 등에 선별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차기 유망 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기술 제휴선(일본/유럽)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신규 기술제휴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5~6년간 연구개발, 시설 증대 등에 단계적으로 1000억까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전략에 관해서는 기존의 2개 해외공장 1개 연구소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판매, 마케팅은 모기업인 한솔그룹의 해외 무역망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정보통신사업에 본격 참여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의 정보통신사업 참여 의

미는 무엇입니까?

한국마벨은 이를 위해 2001년에 매출액 5,000억원 달성을 골자로 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진천에 연건평 6,000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한 사업구조 조정과 신규사업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는 우선 정보통신 관련사업과 관련해 향후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해 고속모뎀·모니터 등을 개발, 사업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또 사업구조 조정을 위해 경기도 화성·서산공장과 강원도 횡성공장을 매각하고 충북 진천에 연건평 6,000평 규모의 공장을 내년 6월까지 신축, 국내 생산시설을 통합해 신규정보통신 관련제품과 고부가가치의 전자제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가 낮은 기존 주력제품들은 점진적으로 태국 반봉공장과 중국 청도공장으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올해 4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기점으로 21세기로 도약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일류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경영 및 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마벨의 경영환경을 전망해 주시죠?

최근의 국내외 전자산업은 유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고 특히 대형 부품 Maker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엔고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원고현상은 현재로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Maker들의 해외 생산비중 증대 그리고 금년 하반기를 고비로 국내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인력조달도 전문 및 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제품 시장/생산요소시장(원자재, 인력 등)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님의 경영철학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요?

한국마벨은 30년간 부품산업에만 종사해 온 기업으로서 기업문화는 상당한 보수성이 있고, 새로이 모기업이 된 한솔그룹은 인간과 기술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영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20여년간 품질경영을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보수성과 진취성이라는 양날개를 품질경영으로서 조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한국마벨의 노사관계를 전망하신다면?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노사관계도 질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경영상황과 회사 Vision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하여 경영성과도 공유하는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정보

화 사회에서의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통합되도록 경영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의 여가활동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쁜 생활때문에 Field에는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음악감상을 좋아하고 젊은 세대와 호흡을 함께하려고 대중 가요도 즐겨 찾는 편입니다.

정부나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 대한 제언 말씀이 있으시다면?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인간생활과 문화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추세이고, 통신시장의 개방압력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국내 정보통신의 H/W 시장기반이 잠식되지 않도록 업계와는 다면적인 대화를 갖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